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 설교

여러분, 빈 방에 예쁜 그림을 걸고 소파를 놓으면 한결 따뜻하고 아늑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머무실 “집”을 준비하시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완성한 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에 기름 부음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자리를 밝혀 주셨어요. 완성된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과 가정에도 하나님만의 집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하고 기도하고, 학교나 친구 집에서도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작은 기도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환히 밝히고, 문제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줄 거예요.

가끔 친구와 다투거나 숙제가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성막 위 구름기둥처럼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짧은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드리듯 기도로 하나님을 초청하며 살아가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주세요!”

## 예배 순서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예배하는 시간 속에 다 같이

말씀봉독 출애굽기 40:17~38절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 설교자

말씀나눔 ..... 다 같이

합심기도 ..... 다 같이

축복기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 다 같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 양

예배하는 시간 속에



##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성막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진리를 고백하며, 매일 제 마음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가정과 학교, 친구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2. 내가 매일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